

월간

울산 경제

Monthly Ulsan Economy

2023년
11월호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울산연구원
ULSAN RESEARCH INSTITUTE

월간

울산 경제

Monthly Ulsan Economy

Contents

01. 개관 ... 01p

02. 인포그래픽스

• 근로자고령화 톺아보기 ... 04p

03. 울산 경제 동향

1. 경 기 ... 8p	6. 고 용 ... 22p
2. 생 산 ... 11p	7. 물 가 ... 25p
3. 소 비 ... 16p	8. 금 융 ... 26p
4. 투 자 ... 18p	9. 부동산 ... 28p
5. 수출입 ... 19p	

04. 전문가 리포트

• 스포츠관광, 왜 주목해야 하는가? ... 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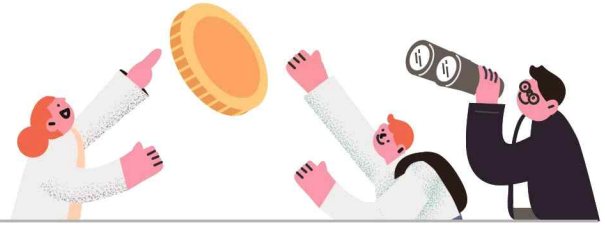
05.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외경제 동향 ... 43p
2. 국내경제 동향 ... 45p

[참고 1] 최근 10년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 48p

[참고 2] 용어 해설 ... 50p





제조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증가폭이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되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다만 물가상승폭이 전월비 축소되었음에도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

- » **경기**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소폭 증가
 - BSI: 제조업은 석유화학·운송장비, 비제조업은 건설업, 기타비제조업 등이 악화되어 전월대비 각각 하락
 - 소상공인·전통시장BSI는 계절적 요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
- »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104.0)는 기준치를 상회하며 양호한 모습, 다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늘었으나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1차금속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비 지수가 감소
-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은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가 늘어 증가세 지속
 - CSI는 지난달부터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지수가 전월대비 감소
- » **투자** 설비투자는 자본재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증가, 건설투자는 감소세 지속
- » **수출입**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 수입은 8개월만에 증가 전환, 무역수지는 39.3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은 전국의 14.1%의 비중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 품목별로 자동차 > 석유제품 > 선박
 - 해양구조물및부품 순, 국가별로 미국 > 호주 > 중국 순
- » **고용**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이 소폭 증가, 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증가
- » **물가** 물가상승률은 상품물가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3.2% 기록
- » **금융** 전년동월대비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 기업대출은 증가추세
 - 어음부도율은 하락 전환, 연체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모두 감소세 지속
 - 주택매매거래량 큰 폭 증가, 미분양주택은 높은 증가율 지속

주요지표

월간 울산경제

▶ 경 기 10월 전월비



경기동행지수
104.4 0.4%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4 0.4p



11월 전월비 기업경기조사



제조업 BSI
63 6p



비제조업 BSI
59 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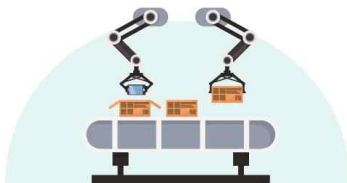
소상공인 BSI
68.2 2.6p



전통시장 BSI
61.6 4.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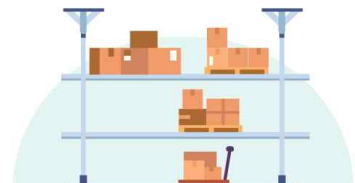
▶ 생 산 10월 전년동월비



생산지수
104.0 0.6%



출하지수
103.3 1.7%



재고지수
94.2 6.8%



▶ 소 비 10월 전년동월비



대형소매점
101.2 2.8%



백화점
112.6 1.8%



대형마트
91.7 8.5%



▶ 투 자 10월 전년동월비



자본재
\$1.6억 33.1%



기계류
\$1.7억 23.0%



건설수주
2522억원 61.6%



▶ 수출입 10월 전년동월비



수출
\$77억 11.1%



수입
\$38억 7.6%



Monthly Ulsan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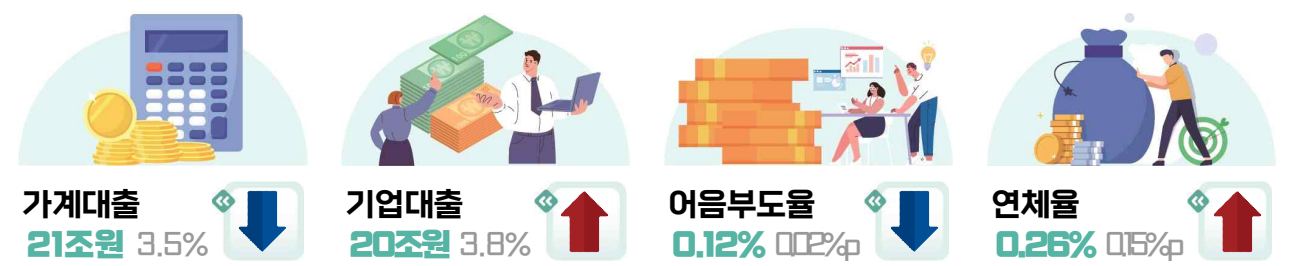
고용 10월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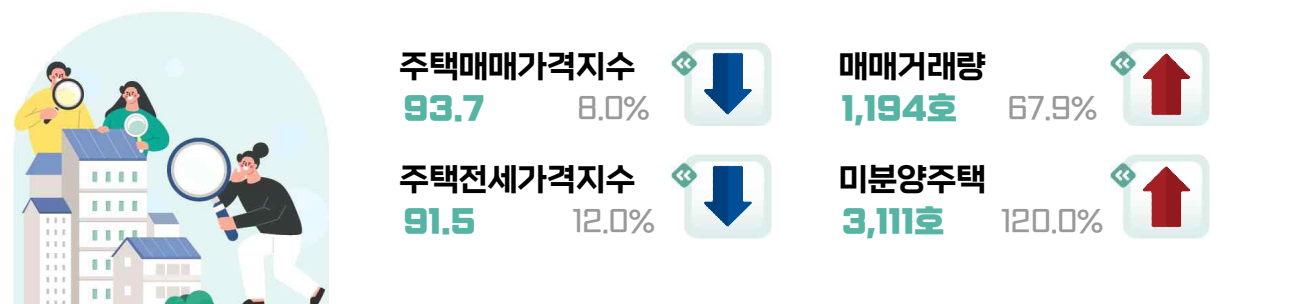
물가 11월 전년동월비



금융 9월 전년동월비 (어음부도율은 9월 기준)



부동산 10월 전년동월비





근로자고령화 토크아보기



토크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면서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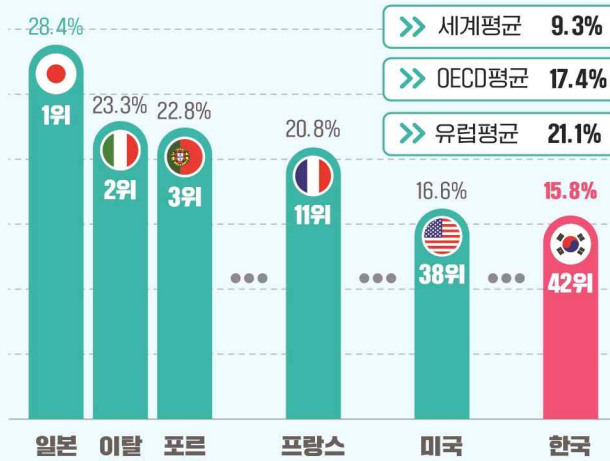
고령화율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 ▶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세계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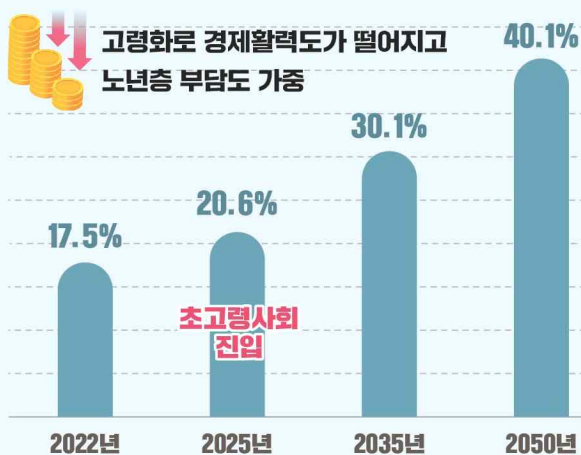


주: 2020년 기준 자료: THE WORLD BANK

고령화 진행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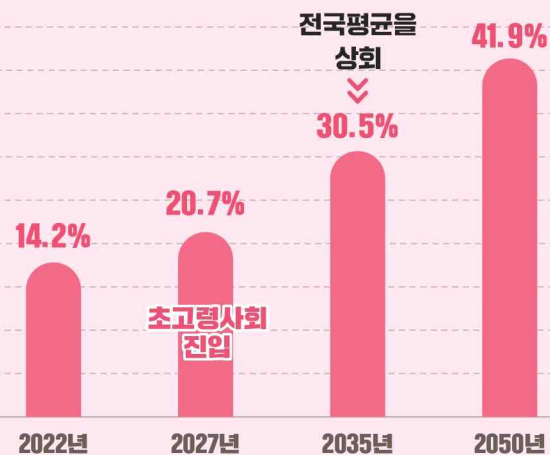


한국 고령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울산 고령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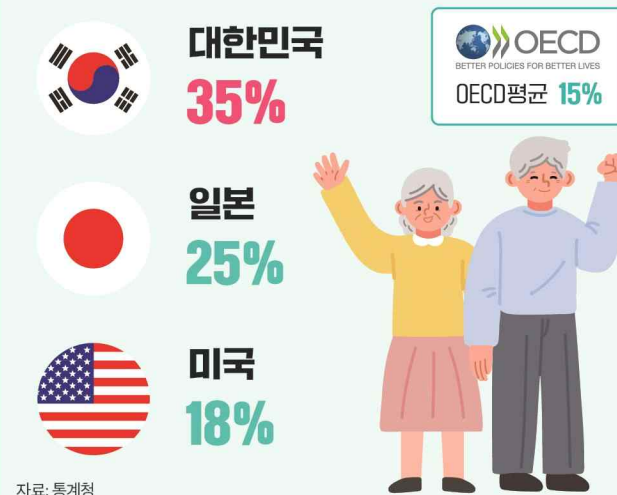


고령화로 업계 전반의 역동성 저해 우려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고 젊은 노동자 유입을 위해 현장의 근무조건 개선 및 젊은 세대 가치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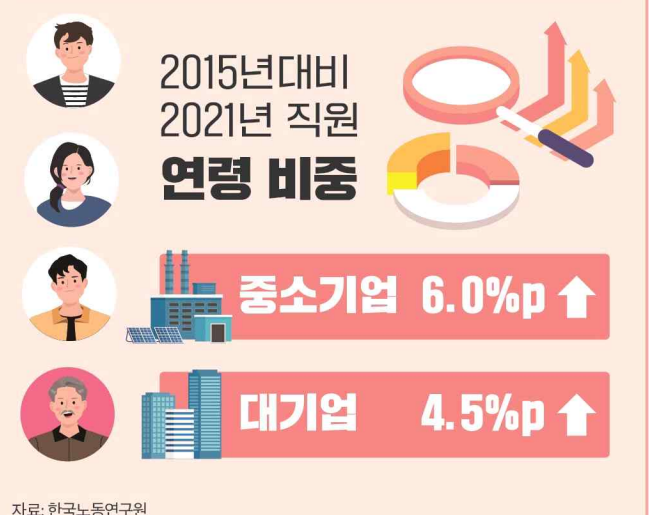
- ▶ 2022년 기준 울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14.2%이며, 2027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일하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 2023년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11만명으로, 2015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한 수치
- ▶ 고령령으로 갈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공급도 부족한 실정,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양적, 질적 제고가 시급
- ▶ 또한 소외 노인 지원확대,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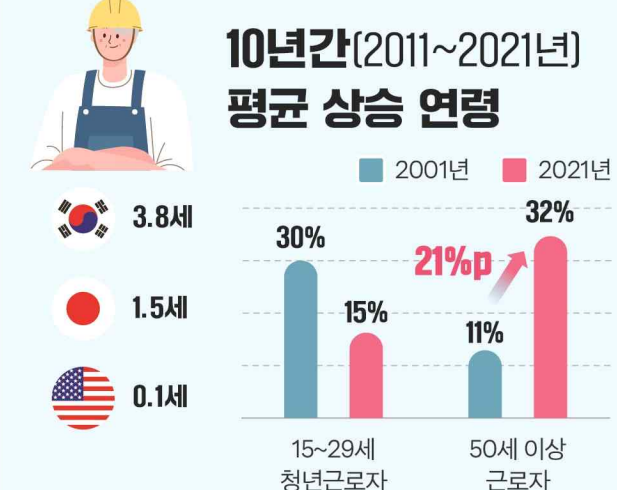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 중소기업 직원 4명 중 1명 → 5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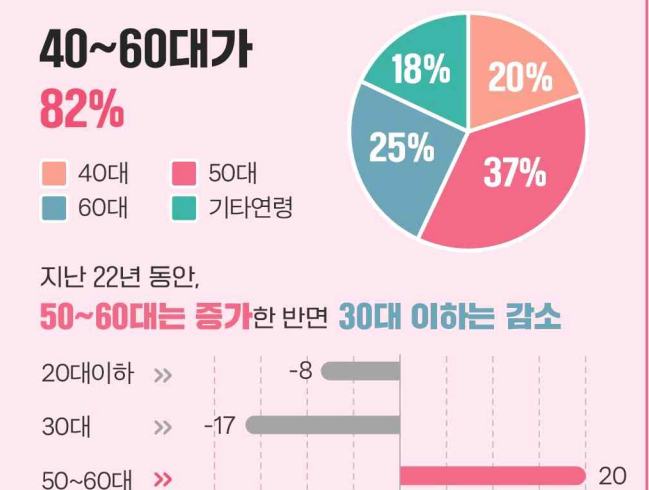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43.4세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건설현장 건설기능인력 평균연령 51세



Ulsan Economy Trend

울산 경제 동향

1. 경 기

6. 고 용

2. 생 산

7. 물 가

3. 소 비

8. 금 융

4. 투 자

9. 부동산

5. 수출입



1 경기

'23년 10월 울산 경기동행지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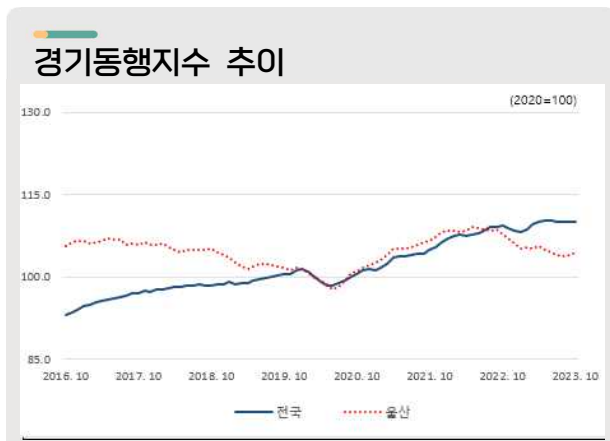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 울산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104.4**, 전국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110.1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울산은 전월대비 0.4p 상승한 **98.4**이며, 전국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99.1

- 지수가 감소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 구성지표 중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지수가 증가한 모습
- (구성지표) 전월대비 수입액(4.4%), 수출액(3.7%), 광공업생산지수(1.1%), 제조업출하지수(1.0%), 주택매매가격지수(0.1%)는 증가,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5%), 비농림어업취업자(-0.1%)는 감소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동행지수 변동요인 중 추세적 요인, 계절적 요인, 천재지변 및 사건과 같은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변동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작성

※ 구성지표의 전월비(%)는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원계열·계절조정계열의 전월비와 차이가 있음



자료: 울산연구원, 울산경기동행지수;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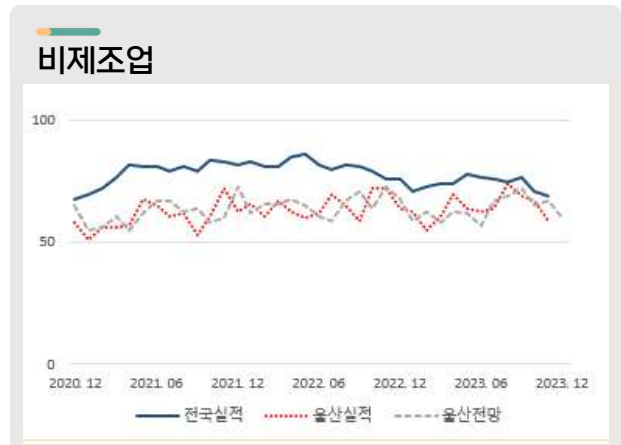
경기동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20=100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p)	10p)
경기동행지수	108.6	107.8	106.9	106.1	105.1	105.4	105.2	105.7	104.9	104.5	103.9	103.7	104.0	104.4
전월비(%)	0.2	-0.8	-0.8	-0.7	-1.0	0.3	-0.3	0.5	-0.8	-0.4	-0.6	-0.2	0.2	0.4
순환변동치	101.7	100.8	99.9	99.0	98.0	98.2	97.8	98.5	98.1	98.0	97.6	97.7	98.0	98.4
전월차(p)	0.1	-0.9	-0.9	-0.8	-1.1	0.2	-0.4	0.7	-0.4	-0.1	-0.4	0.1	0.3	0.4

자료: 울산연구원, 울산경기동행지수

'23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업황실적 전월대비 6p 하락, 비제조업 업황실적은 전월대비 8p 하락

- » **(제조업)** 11월 업황BSI는 **63**으로 전월(69) 대비 6p 하락, 12월 업황전망BSI는 **61**로 전월(73) 대비 12p 하락
- 11월 업황BSI는 석유화학, 운송장비 업종 등이 악화, 12월 업황전망BSI도 석유화학, 운송장비 업종 등에서 악화로 나타남
 - 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인력난·인건비 상승(16.5%), 수출부진(16.3%) 순으로 응답
- » **(비제조업)** 11월 업황BSI는 **59**로 전월(67) 대비 8p 하락, 12월 업황전망BSI는 **60**으로 전월(67) 대비 7p 하락
- 11월 업황BSI는 기타비제조업(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이 악화되었으며, 12월 업황전망BSI도 기타비제조업(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악화 예상
 -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4.4%), 내수부진(16.7%), 불확실한 경제상황(12.8%) 순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

(단위: p)

		2022		2023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제조업	실적	66	66	58	60	55	70	73	64	72	74	70	69	63	-
		5	0	-8	2	-5	15	3	-9	8	2	-4	-1	-6	-
	전망	59	61	67	57	61	54	68	73	60	65	75	80	73	61
비제조업	실적	72	64	63	55	61	70	64	63	64	74	69	67	59	-
		0	-8	-1	-8	6	9	-6	-1	1	10	-5	-2	-8	-
	전망	73	68	59	63	58	63	62	57	67	69	72	65	67	60
		9	-5	-9	4	-5	5	-1	-5	10	2	3	-7	2	-7

주: 1) 이달리치는 전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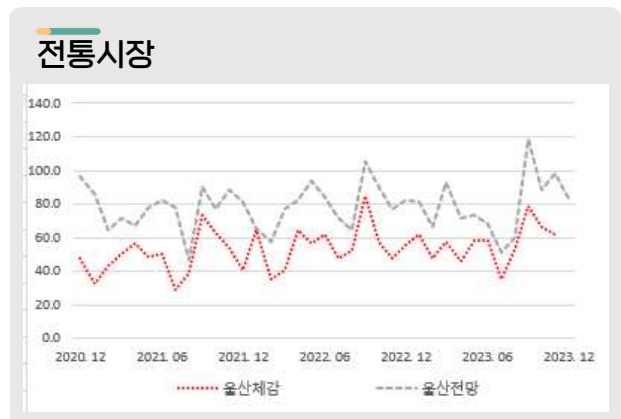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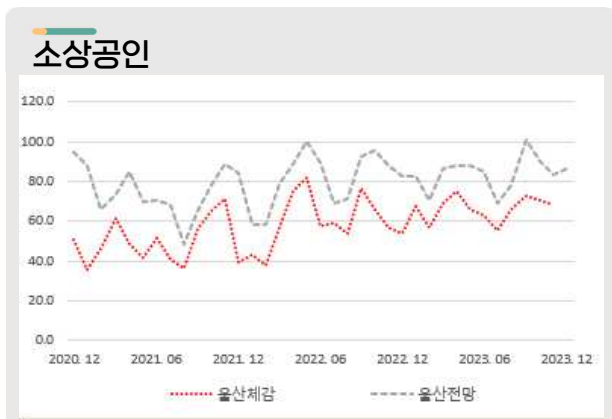
2) ('긍정적' 응답업체수-'부정적' 응답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X100+100

3)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 대비 많으므로 경기가 좋음, 100 이하면 그 반대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23년 11월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 전월대비 2.6p 하락, 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는 전월대비 4.5p 하락

- » (소상공인) 11월 체감BSI는 **68.2**로 전월(70.8) 대비 2.6p 하락, 12월 전망BSI는 **86.5**으로 전월(83.3) 대비 3.2p 상승
- (체감BSI) 개인서비스업, 수리업 등을 중심으로 계절적 요인이 호전으로 작용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수가 전월대비 하락
 - (전망BSI)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날씨, 방학 등 계절적 요인과 연말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월대비 상승 전망
- » (전통시장) 11월 체감BSI는 **61.6**로 전월(66.1) 대비 4.5p 하락, 12월 전망BSI는 **83**으로 전월(98.2) 대비 15.2p 하락
- (체감BSI) 날씨, 김장철 등 계절적 요인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유동인구 및 고객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 (전망BSI)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의류·신발, 가정용품), 연말 등이 경기 호전사유로 작용했으나,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계절적 요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경기는 전월 대비 하락할 전망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경기지수

(단위: p)

		2022		2023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소상공인	체 감	56.7	54.1	67.5	56.8	69.3	75.0	66.1	62.5	55.2	65.6	72.9	70.8	68.2	-
		-9.3	-2.6	13.4	-10.7	12.5	5.7	-8.9	-3.6	-7.3	10.4	7.3	-2.1	-2.6	-
전 망	전 망	88.1	83.0	82.5	70.1	86.5	88.0	88.0	84.9	68.8	78.1	101.0	90.6	83.3	86.5
		-7.3	-5.1	-0.5	-12.4	16.4	1.5	0.0	-3.1	-16.1	9.3	22.9	-10.4	-7.3	3.2
전통시장	체 감	47.4	55.3	62.3	47.3	57.1	46.4	58.0	58.0	35.7	52.7	78.6	66.1	61.6	-
		-10.5	7.9	7.0	-15.0	9.8	-10.7	11.6	0.0	-22.3	17.0	25.9	-12.5	-4.5	-
전 망	전 망	77.2	82.5	81.6	66.7	92.9	71.4	73.2	67.9	50.9	59.8	118.8	88.4	98.2	83.0
		-13.2	5.3	-0.9	-14.9	26.2	-21.5	1.8	-5.3	-17.0	8.9	59.0	-30.4	9.8	-15.2

주: 1) 이탤릭체는 전월대비 증감

2)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호전 및 악화 사유는 전국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2 생 산

'23년 10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감소, 재고는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04.0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3.8%), 화학제품(3.9%) 등은 늘었으나, 기타 운송장비(-21.6%), 1차금속(-6.0%)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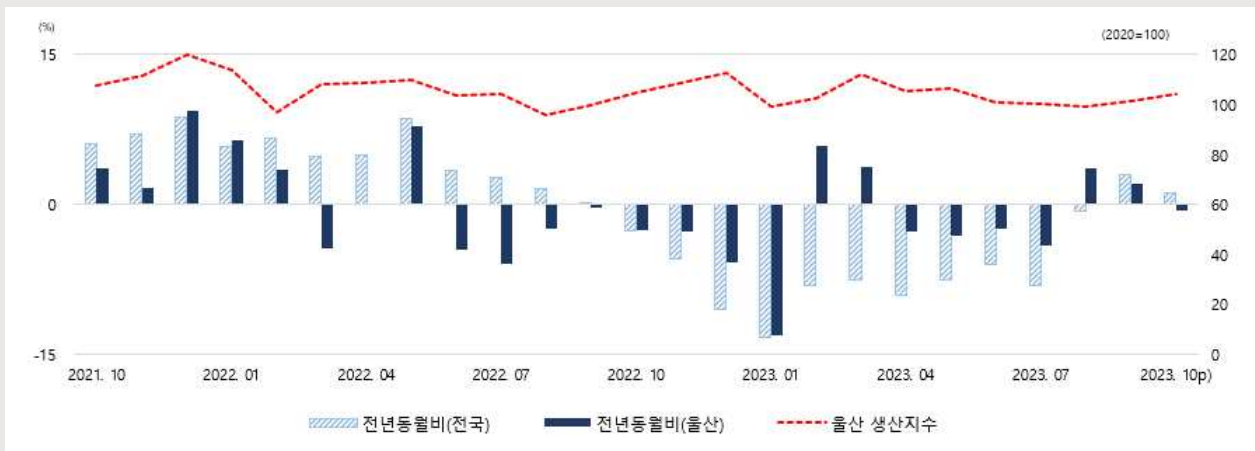
»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03.3

- 광공업 출하는 자동차(5.8%), 석유정제(2.9%) 등은 늘었으나, 기타 운송장비(-20.7%), 화학제품(-6.5%)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 (제조업제품재고지수)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94.2

- 제조업 재고는 1차금속(-14.3%), 전기장비(-4.8%) 등은 줄었으나, 자동차(38.2%), 석유정제(5.%)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광공업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공업생산활동 지표

(단위: 2020=100, %)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p)	10p)
생산지수	99.5	104.6	108.5	112.8	99.1	102.2	111.9	105.5	106.2	101.0	100.1	99.2	101.5	104.0
	-0.3	-2.6	-2.8	-5.8	-13.1	5.8	3.7	-2.8	-3.1	-2.5	-4.1	3.5	2.0	-0.6
출하지수	97.7	105.1	105.2	109.0	97.0	101.2	109.9	101.6	107.4	101.8	98.2	100.2	101.1	103.3
	-1.1	-2.1	-3.2	-4.8	-10.7	5.6	4.6	-2.8	-2.2	4.9	-5.4	4.2	3.5	-1.7
재고지수	94.7	88.2	90.7	91.0	97.5	93.5	89.0	97.7	95.9	86.7	89.4	92.5	91.4	94.2
	-7.5	-8.8	0.3	-3.0	3.4	2.1	-3.2	2.4	10.9	-8.4	-1.4	-0.2	-3.5	6.8

주: 1)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광공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력산업) 전반적인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 사업장수는 2,219개로 3.4% 증가

» (생산활동) 전년동월대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생산은 증가폭 축소, 자동차는 증가로 전환, 석유정제품, 선박, 비철금속 등의 생산은 지속 감소 추세

- (석유화학) 석유정제품은 107.7로 3개월째 기준치를 상회하나 11개월 연속 감소추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85.0으로 증가폭 축소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116.7로 증가 전환
- (선박) 생산지수는 92.4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 지속 감소추세
- (비철금속)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한 96.5로 지난해 11월부터 기준치를 하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력산업 생산지수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p)	10p)
석유정제품	104.3	110.6	102.6	102.3	105.7	96.3	106.7	105.6	107.4	73.1	93.8	105.9	102.9	107.7
	7.4	6.3	1.0	-6.4	-7.4	-4.7	-4.2	-3.7	-1.4	-22.1	-19.9	-9.6	-1.3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1.9	81.8	79.4	93.3	92.9	88.2	95.6	92.5	94.8	86.6	92.8	93.8	92.8	85.0
	-23.2	-15.1	-17.9	-15.6	-15.7	-11.5	-12.4	-9.8	-8.9	-10.2	-5.8	2.6	13.3	3.9
자동차	105.8	112.4	122.3	124.1	98.0	112.9	127.5	117.9	120.1	118.2	108.0	102.3	99.4	116.7
	26.1	8.6	10.9	10.8	-0.5	26.1	30.4	5.6	12.3	15.1	9.1	14.6	-6.0	3.8
선박	102.3	117.8	119.4	116.9	93.8	102.1	106.7	92.4	90.3	90.3	82.7	75.9	101.7	92.4
	-32.7	-34.3	-40.6	-39.8	-52.0	-2.3	-16.8	-24.2	-36.7	-27.9	-23.9	-12.7	-0.6	-21.6
비철금속	100.0	102.7	98.5	99.3	97.1	92.3	88.6	95.4	95.0	92.9	94.3	93.7	92.9	96.5
	-1.4	-1.4	-3.8	-2.4	-5.0	-0.1	-14.0	3.2	-1.5	-5.6	-5.9	-7.4	-7.1	-6.0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사업장현황) 주력산업의 사업장은 **2,219**개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석유화학) 석유정제품은 31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2개소 증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500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8개소 감소(전월대비 각각 보합, +2개소)
- (자동차) 총 725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11개소 증가(전월대비 +8개소)
- (선박) 전년동월대비 73개소 증가한 871개 업체(전월대비 +7개소)
- (비철금속) 전년동월대비 5개소 감소한 92개 업체(전월대비 -1개소)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비철금속



자료: 고용행정통계, 사업장현황

주력산업 사업장 현황

(단위: 개, %)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석유정제품	29	29	32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6	3.6	14.3	10.7	10.7	10.7	10.7	10.7	10.7	10.7	6.9	6.9	6.9	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11	508	507	505	504	503	504	501	497	500	498	498	498	500
	2.0	1.0	1.2	1.6	1.8	1.0	0.8	-0.6	-1.6	-1.0	-2.0	-1.8	-2.5	-1.6
자동차	716	714	716	718	723	725	720	719	718	719	713	714	717	725
	0.8	-0.1	1.1	1.3	1.7	1.1	-0.1	-0.6	-0.3	-0.7	-1.5	-0.8	0.1	1.5
선박	820	798	815	809	821	826	837	837	841	852	852	856	864	871
	3.5	-1.0	0.5	2.0	1.5	1.5	1.5	1.6	3.7	4.9	3.9	4.9	5.4	9.1
비철금속	96	97	98	98	100	98	96	96	96	96	93	93	93	92
	-5.0	-4.0	-4.9	-1.0	3.1	1.0	-1.0	-3.0	-2.0	-1.0	-4.1	-3.1	-3.1	-5.2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행정통계, 사업장현황

(생산산단) 9월 울산 국가산업단지 '미포'는 가동률이 증가하였으나, 고용, 입주업체수, 생산액, 수출액이 감소하였고, 온산은 가동률, 생산액, 입주업체수는 증가, 수출액, 고용은 감소

- » **(생산액)** 미포 **12.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온산 **5.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 **(수출액)** 미포 **51.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온산 **21.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 » **(고용)** 미포 **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온산 **1만 4천7백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 **(입주업체수)** 미포 **1024개사**로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 온산 **461개사**로 전년동월대비 44.1% 증가
- » **(가동률)** 미포 **90.5%**로 전년동월대비 4.6%p 증가, 온산 **92.9%**로 전년동월대비 2.0%p 증가

국가산업단지 활동지표

		2022					2023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생산 (조원, %)	미포	12.8	12.2	12.2	12.3	12.7	11.6	11.7	12.8	12.9	12.5	11.8	11.8	12.3	12.7
		40.2	34.3	19.3	17.7	14.2	4.2	11.1	4.6	2.0	-2.3	-5.9	-12.6	-3.9	4.1
온산		5.6	5.2	5.5	5.5	4.9	5.4	5.0	52.3	52.8	5.5	4.2	4.9	5.8	5.8
		30.5	18.7	14.5	15.1	0.1	8.3	-0.5	765.4	787.9	-13.0	-25.2	-17.7	3.5	10.6
수출 (억달러, %)	미포	49.7	55.1	46.2	47.9	53.4	46.6	52.9	54.1	50.6	51.7	47.4	48.4	48.9	51.2
		38.9	47.8	8.0	11.9	16.6	11.6	23.6	16.2	-1.4	1.9	-1.1	-14.4	-1.6	-7.1
온산		18.4	19.4	18.4	20.4	18.2	15.4	18.4	17.1	15.6	17.3	11.3	13.4	19.4	21.2
		7.0	9.8	-7.6	-0.7	-14.7	-22.2	1.4	-26.2	-37.4	-30.2	-35.6	-19.6	5.4	9.6
고용 (천명, %)	미포	97.3	97.2	97.2	97.3	97.2	97.3	97.2	97.2	88.1	96.7	96.9	96.9	96.9	97.0
		8.4	8.3	8.1	8.4	5.2	5.1	5.0	5.1	-4.2	5.1	5.4	5.3	-0.4	-0.3
온산		15.2	15.0	15.0	14.9	14.9	15.1	14.9	14.8	14.8	14.4	14.4	14.6	14.7	14.7
		3.9	1.7	1.8	1.3	1.5	3.1	1.4	-0.1	0.3	-1.6	-1.9	-0.9	-3.7	-1.9
입주업체 (개사, %)	미포	788	789	787	787	787	787	787	787	787	787	787	787	1024	1024
		-3.1	-3.1	-3.3	-3.0	-3.1	-3.2	-3.1	-3.1	-3.0	-3.0	-3.2	-1.5	29.9	29.8
온산		322	320	321	321	321	321	321	322	325	325	325	325	461	461
		-2.1	-2.4	-2.1	-2.4	-2.4	-2.4	-2.4	-2.1	-1.2	-1.2	-1.5	0.6	43.2	44.1
가동률 (%, %p)	미포	83.0	85.9	85.8	86.8	90.1	84.6	88.0	90.8	90.5	90.6	91.1	90.1	89.5	90.5
		2.5	6.1	1.0	0.1	1.1	-1.1	4.2	4.1	1.4	2.5	3.1	4.1	6.5	4.6
온산		90.0	90.9	90.7	91.7	91.9	91.3	90.7	89.8	90.3	93.3	67.2	86.8	93.0	92.9
		-2.6	2.2	-2.6	-3.0	-2.4	-2.1	-3.0	-5.3	-0.7	0.0	-24.0	-4.2	3.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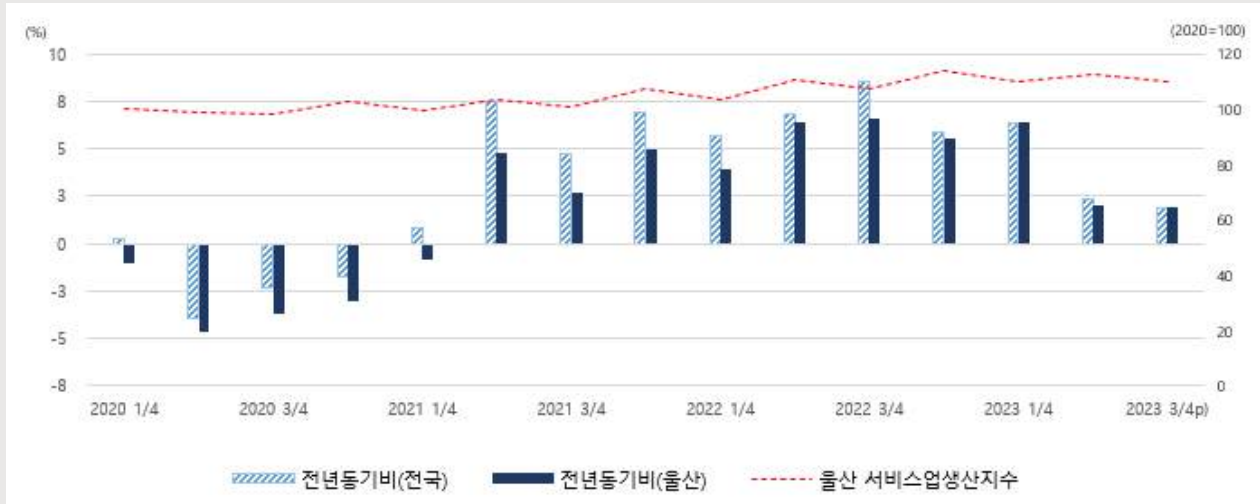
주: 1)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증감
 2) 가동률(%)=(당월생산실적/생산능력)×100, 금액기준(제조업 가동업체 대상)
 3) 미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지칭
 4) 22.1~23.4월까지 연간보정으로 생산, 고용 등의 데이터가 변경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통계

'23년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한 109.7

» '23년 3분기 울산지역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0% 증가**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

(단위: 2020=100, %)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2/4	3/4p)
총지수	107.6	103.2	110.3	107.6	113.6	109.8	112.5	109.7
	5.0	3.9	6.4	6.5	5.6	6.4	2.2	2.1
-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2	6.4	8.2	0.7	-10.8	2.1	1.9	9.5
- 도매 및 소매업	0.3	1.1	0.5	2.7	1.2	3.2	-1.5	-3.0
- 운수 및 창고업	8.0	5.9	5.0	6.5	2.4	9.7	10.9	6.9
- 숙박 및 음식점업	18.2	13.9	19.1	15.9	8.9	26.6	-4.6	7.4
- 정보통신업	3.3	8.1	8.2	-0.4	-0.9	-4.2	-6.2	1.4
- 금융 및 보험업	-1.5	-5.5	0.8	3.6	13.5	13.1	5.4	1.1
- 부동산업	14.1	15.0	26.6	18.4	10.2	13.7	8.4	8.9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	7.2	0.5	14.5	10.1	-11.2	-0.6	-8.6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4.5	3.4	4.4	7.1	3.7	3.7	2.7	-2.4
- 교육 서비스업	4.4	-0.2	1.5	-0.7	-3.2	0.3	-0.7	0.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	6.2	9.4	4.3	8.4	8.3	4.9	9.3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5	41.1	65.1	65.3	40.6	43.8	18.0	28.6
-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2.1	0.4	8.0	7.4	12.0	5.2	-1.4	-1.7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3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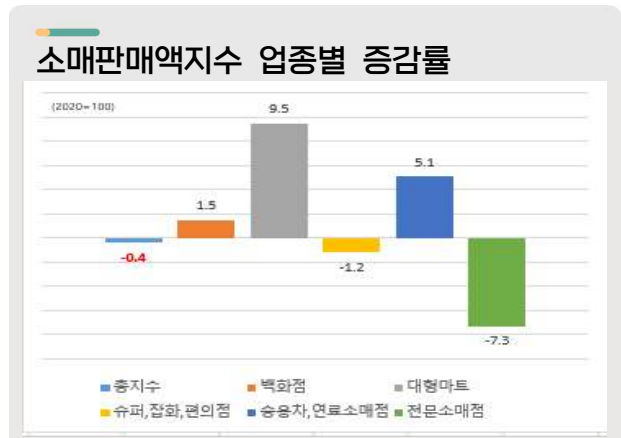
'23년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101.2

'23년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분기대비 0.3% 감소한 96.7

» '23년 10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1.8%)은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8.5%)가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 (전월대비 4.2% 감소)

- 백화점은 전월대비 6.6% 증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대형마트는 전월대비 13.2% 감소,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 '23년 3분기 **소매판매**는 대형마트(9.5%), 승용차·연료소매점(5.1%), 백화점(1.5%)은 증가하였으나, 전문소매점(-7.3%),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1.2%)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0.4% **감소**



주: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23년 2분기 기준 전년동분기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대형소매점 및 소매판매액지수

(단위: 2020=100, %)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p)	10p)
대형소매점	101.6	98.4	91.7	100.0	103.4	84.8	98.0	100.1	103.0	96.4	102.0	90.1	105.6	101.2
	-6.2	-11.4	-12.5	-2.2	-7.8	1.4	-2.5	1.7	-0.7	4.2	9.3	1.3	3.9	2.8
- 백화점	103.8	114.7	102.8	105.0	102.3	99.4	114.0	116.3	117.1	102.2	102.4	82.4	105.6	112.6
	-7.7	-11.8	-20.7	-7.3	-13.4	6.7	-0.5	2.7	-1.3	4.0	7.0	-5.0	1.7	-1.8
- 대형마트	99.8	84.5	82.2	95.8	104.3	72.9	84.9	86.9	91.4	91.7	101.6	96.4	105.7	91.7
	-4.8	-10.8	-1.6	3.2	-2.5	-3.2	-4.0	1.3	0.4	4.8	11.3	6.1	5.9	8.5

2021			2022				2023		
	3/4	4/4	1/4	2/4	3/4	4/4	1/4	2/4p)	3/4p)
소매판매액지수	97.6	101.6	95.9	97.8	97.1	100.1	102.4	100.7	96.7
	-2.2	-0.4	-2.2	-1.5	-0.5	-1.5	6.8	3.0	-0.4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3년 7월 신용카드사용액 증가,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비 하락

▶ (신용카드사용액) '23년 7월 사용액은 **5,67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증가: 교육(16.1%), 자동차(9.9%), 의료·보건(9.1%), 숙박·음식(9.1%), 종합소매(7.7%), 공과금·개인 및 전문서비스(6.9%), 가구·가전(5.7%), 식료품(2.2%), 기타(2.2%)
- 감소: 연료(-25.2%), 전자상거래·통신판매(-24.6%), 여행·교통(5.5%), 금융·보험(-2.7%), 의료·잡화(-1.6%), 오락·문화(-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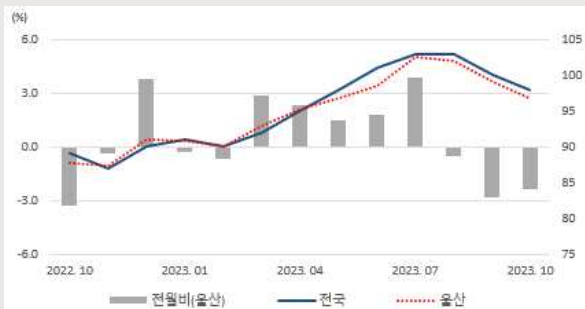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 '23년 10월 CSI는 전월대비 2.4p 하락한 **96.8**, 지난달에 이어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감소

- 6개 구성지표(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모두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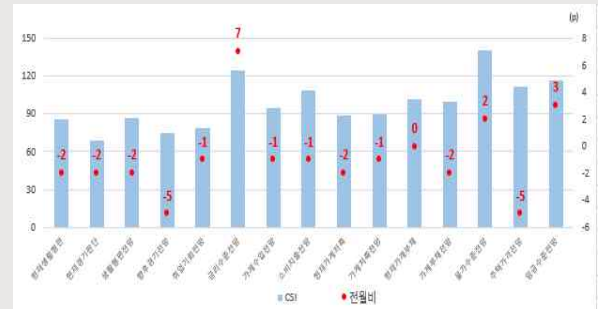
신용카드사용액 및 증감률 추이



소비자심리지수



세부CSI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신용카드 사용액과 CSI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신용카드사용액 (십억원)	5,220	5,568	5,347	5,569	5,373	4,933	5,531	5,372	5,609	5,491	5,673		-	-
	13.7	10.8	6.7	11.8	14.1	22.5	14.9	6.5	-0.3	3.3	1.6		-	-
CSI	81.0	87.7	87.3	91.1	90.8	90.1	93.0	95.3	96.8	98.6	102.5	102.0	99.2	96.8
	-0.5	-3.3	-0.4	3.8	-0.3	-0.7	2.9	2.3	1.5	1.8	3.9	-0.5	-2.8	-2.4

주: 이태릭체는 신용카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CSI 전월대비 증감(p), 한국은행의 8월 신용카드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지난달 것으로 대체.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4 투자

'23년 10월 설비투자는 증가, 건설투자는 감소세 지속(전년동월대비)

- » (설비투자) '23년 10월 설비투자는 3억 3천2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증가**
 - 자본재 수입액은 **1억 6천1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3.1% 증가, 기계류 수입액은 **1억 7천1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 » (건설투자) '23년 10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61.6% 감소한 2,252억원**
 - (발주자별)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각각 늘어 전년동월대비 160.8% 증가, 민간부문은 석유·화학에서 늘었으나 기계·장치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65.5% 감소
 - (공종별) 건축부문은 사무실 및 점포에서 늘었으나 공장 및 창고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58.5% 감소, 토목부문은 발전 및 송전에서 늘었으나 토지조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69.1% 감소

자본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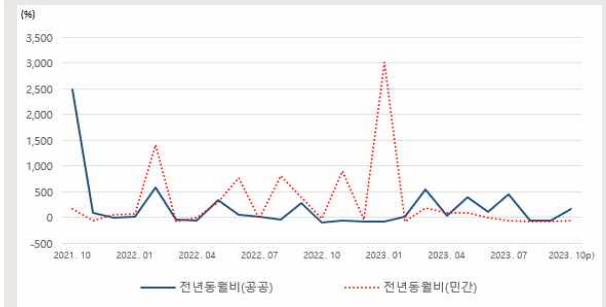
기계류 수입



건설수주액



발주자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투자규모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본재 수입액 (백만달러)	128	121	257	133	122	204	151	142	155	138	134	165	120	161
	34.7	15.2	157.0	15.7	1.7	137.2	25.8	39.2	59.8	16.9	24.1	26.9	-6.3	33.1
기계류 수입액 (백만달러)	138	139	269	158	138	237	171	388	141	169	144	129	146	171
	27.8	9.4	149.1	20.6	6.2	115.5	9.6	266.0	-0.7	3.0	6.7	-15.1	5.8	23.0
건설수주액 (십억원)	333.2	586.4	482.9	231.5	8,645.0	202.9	325.4	985.4	471.3	645.0	405.2	192.1	74.2	225.2
	-57.2	76.0	-17.6	-60.4	2,265.9	-73.2	312.6	92.2	138.7	9.2	-60.2	-75.4	-77.7	-61.6

주: 이태리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5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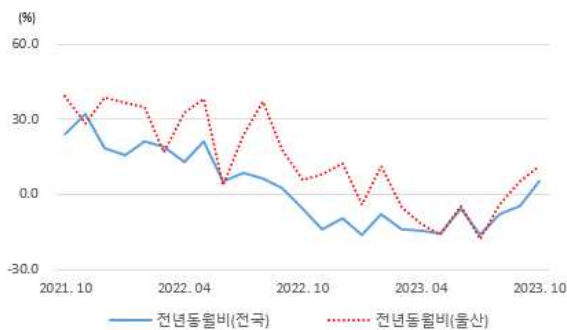
'23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수출(+11.1%)과 수입(7.6%) 각각 증가 무역수지는 39억 2천5백만달러 흑자(+14.8%)

» (수출입)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 수입은 8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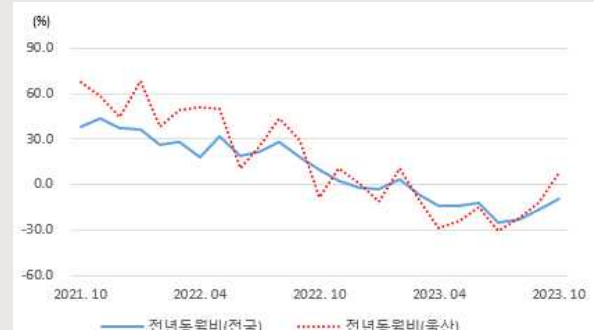
- (수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한 77.4억 달러로 전월대비 1.7% 증가
- (수입)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한 38.2억 달러이며 전월대비 3.1% 감소
- (무역수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한 39.3억 달러 흑자, 전월대비 6.9% 증가

※ 전국의 경우 수출 550.8억달러(5.1%), 수입 534.6억달러(-9.7%),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 전국대비 비중은 14.1%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2위**

시도별 수출규모 및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 (품목별)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은 증가, 합성수지, 금은빛백금 등은 감소

- 자동차는 지속 증가추세이며 증가폭도 확대되어 석유제품을 제치고 수출비중(32.2%) 1위 등극 (전년동월대비: 6월 38.9% → 7월 10.0% → 8월 17.9% → 9월 1.6% → 10월 19.8%)
- 석유제품(수출비중 28.3%)은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6월 -56.3% → 7월 -53.8% → 8월 -27.2% → 9월 12.3% → 10월 25.8%)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수출비중 11.3%)은 6월부터 큰 폭의 증가세 유지(6월 146.9% → 7월 83.8% → 8월 71.0% → 9월 59.2% → 10월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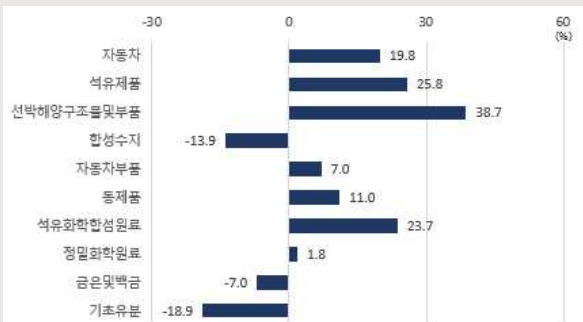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6.3%), 동광(96.5%), 석유제품(73.6%), 동제품(16.0%), 기타금속광물(66.2%) 등

» (국가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증가,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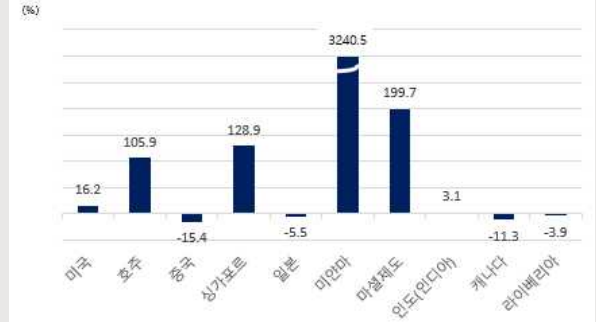
- 對미국 수출은 19.8억달러로 울산 수출의 25.6% 차지, 품목별로 석유제품, 연제품 등이 감소 하였으나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6.2% 증가
- 對호주 수출은 7.7억달러로 석유제품, 자동차 등이 늘어 증가폭(105.9%)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對중국 수출은 6.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4% 감소
- 對싱가포르의 석유제품, 금은빛백금 등이 늘어 128.9% 증가했으며, 미얀마, 마셜제도는 선박 수출에 힘입어 수출 10위권 내 진입

※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6%), 중국(38.5%), 인도네시아(197.6), 일본(15.6%), 미국(-41.8%) 등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



국가별 수출증감률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무역규모 및 증감률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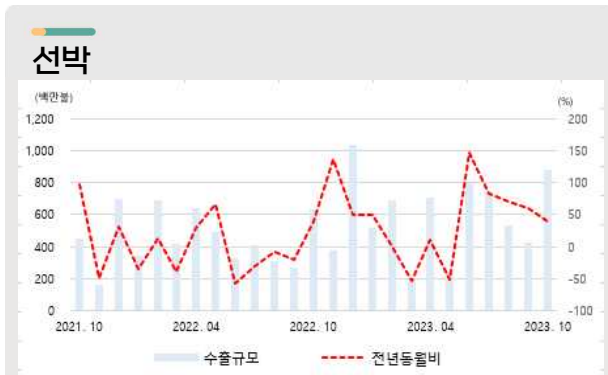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출액	7,218	6,964	7,005	8,289	6,443	7,701	7,229	7,342	6,847	6,545	6,839	7,337	7,611	7,740	
- 전국비중	18.1	5.7	8.1	12.5	-4.2	11.1	-5.2	-11.8	-16.0	-4.8	-17.9	-4.1	5.4	11.1	
	12.6	13.3	13.5	15.1	13.9	15.4	13.2	14.8	13.2	12.1	13.5	14.1	13.9	14.1	
수입액	4,506	3,544	3,947	4,259	3,846	3,906	3,986	3,804	3,644	3,314	3,355	3,706	3,938	3,815	
	28.9	-8.8	10.7	0.5	-11.2	10.3	-10.4	-28.8	-23.6	-15.2	-30.6	-22.1	-12.6	7.6	
무역수지	2,712	3,420	3,058	4,030	2,597	3,795	3,243	3,538	3,203	3,231	3,484	3,631	3,673	3,925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주력산업) 비철금속 감소폭 확대, 석유화학, 자동차 및 선박 증가세 유지

- » **(석유화학)** 석유제품 수출은 21.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8% 증가,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9.4억달러로 1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자동차)** 수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8% 늘면서 증가세 유지
- » **(선박)** 수출규모는 8.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38.7%)의 증가세 지속
- » **(비철금속)** 수출은 4.7억달러로 지속 감소 추세(-15.9% → -21.4% → -9.0% → -2.1% → -7.7%)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주력산업 수출추이

(단위: 백만불, %)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석유정제품	2,379	1,741	2,025	2,154	1,821	2,163	2,200	1,773	1,879	954	1,556	2,342	2,692	2,190
	62.9	12.0	25.1	30.7	6.2	19.5	-7.4	-39.5	-36.5	-55.4	-50.6	-22.0	13.2	25.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144	1,062	968	1,085	996	1,157	1,094	1,090	995	947	908	1,066	1,100	941
	-6.1	-16.7	-21.3	-18.7	-20.4	-9.4	-25.0	-13.6	-22.1	-19.3	-23.3	-8.4	-3.8	-11.4
자동차	1,985	2,081	2,215	2,399	1,867	2,188	2,296	2,405	2,252	2,380	2,310	2,004	2,017	2,492
	28.0	10.6	20.9	22.3	4.4	29.7	40.9	27.5	24.2	38.9	10.1	17.9	1.6	19.8
선박	265	633	373	1,041	516	692	196	709	234	797	750	535	423	878
	-21.4	39.4	137.6	49.4	49.6	0.1	-53.0	10.1	-52.0	146.7	83.8	70.9	59.6	38.7
비철금속	385	509	480	505	342	429	356	350	506	450	363	484	377	468
	-27.8	2.0	-25.3	-18.9	-35.8	-20.4	-29.1	-43.7	-20.2	-15.9	-21.4	-9.0	-2.1	-7.7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6 고용

'23년 10월 취업자수 지난달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증가, 실업률은 감소

» (15세이상인구) 9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천명(-0.3%) 감소한 58만 8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1.5%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3천명(0.8%) 증가한 36만 8천명
※ 전국의 경우 15세이상인구 0.3%, 경제활동인구 1.0% 각각 증가

»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천명(0.3%) 증가한 57만 5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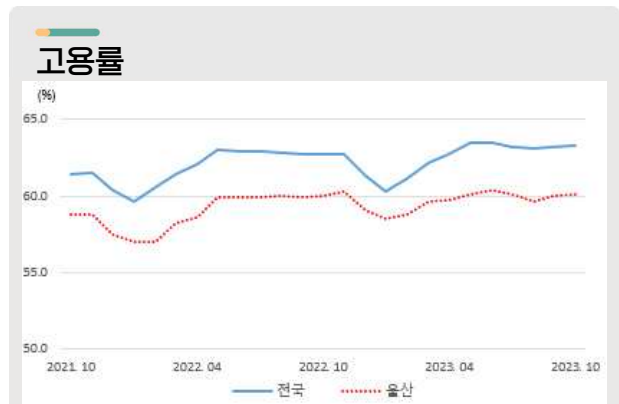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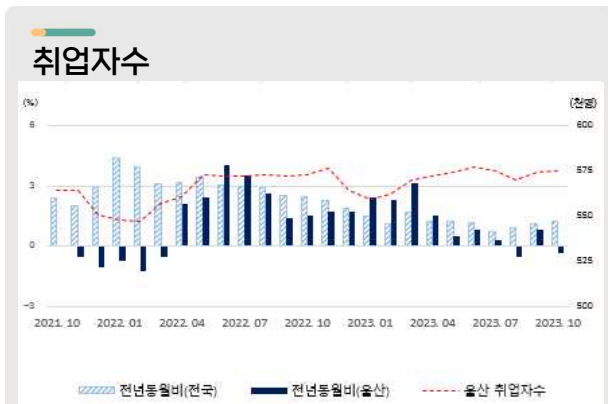
- (청년취업자: 15~29세) 전년동월대비 7.6% 감소한 6만 1천명
- (고령취업자: 60세이상)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한 11만 5천명으로 전국평균 증가율을 상회
※ 전국의 경우 청년취업자 2.1% 감소, 고령취업자 5.4% 증가

»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60.1%로 전국평균 63.1%를 하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5.8%로 전국평균(69.7%)을 하회

»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2.3%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17.6%) 감소한 1만 4천명, 청년실업률('23.3분기)은 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현황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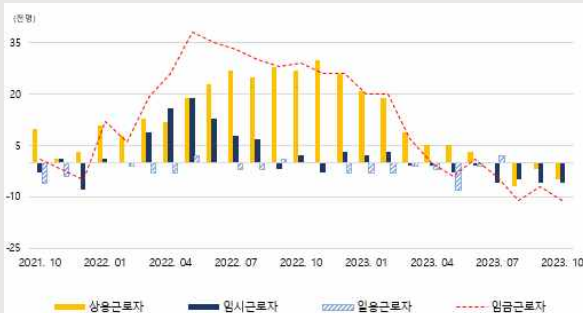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5세이상인구	955	955	955	955	957	957	957	957	957	956	956	956	956	956
경제활동인구	587	590	588	584	585	583	594	592	596	597	593	583	592	588
취업자	572	573	576	564	559	562	570	572	574	577	575	570	574	575
- 청년취업자	67	66	70	69	67	65	70	67	67	69	69	65	66	61
- 고령취업자	107	107	108	98	95	99	103	109	107	108	109	109	111	115
고용률	59.9	60.0	60.3	59.1	58.5	58.8	59.6	59.7	60.1	60.4	60.1	59.6	60.0	60.1
실업자	15	17	12	20	26	21	23	20	22	23	18	14	18	14
실업률	2.6	2.9	2.1	3.4	4.4	3.7	3.9	3.4	3.6	3.3	3.0	2.4	2.4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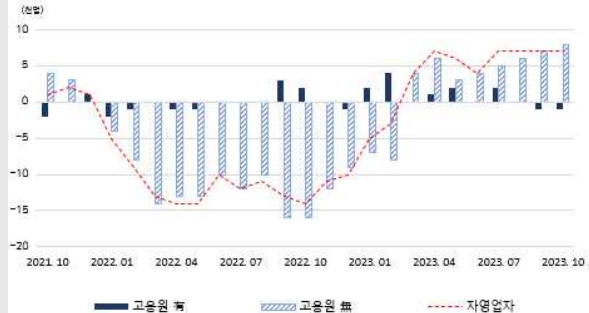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는 2.2% 감소, 비임금근로자는 14.3% 증가

- » (임금근로자) 4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천명(-2.2%) 감소, 이 중 일용근로자는 포함, 상용근로자는 5천명(-1.3%) 감소, 임시근로자는 6천명(-5.7%) 감소
- » (비임금근로자) 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14.3%) 증가, 이 중 자영업자 7천명(9.1%)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4천명(57.1%) 증가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 전년동월대비 8천명(14.5%) 증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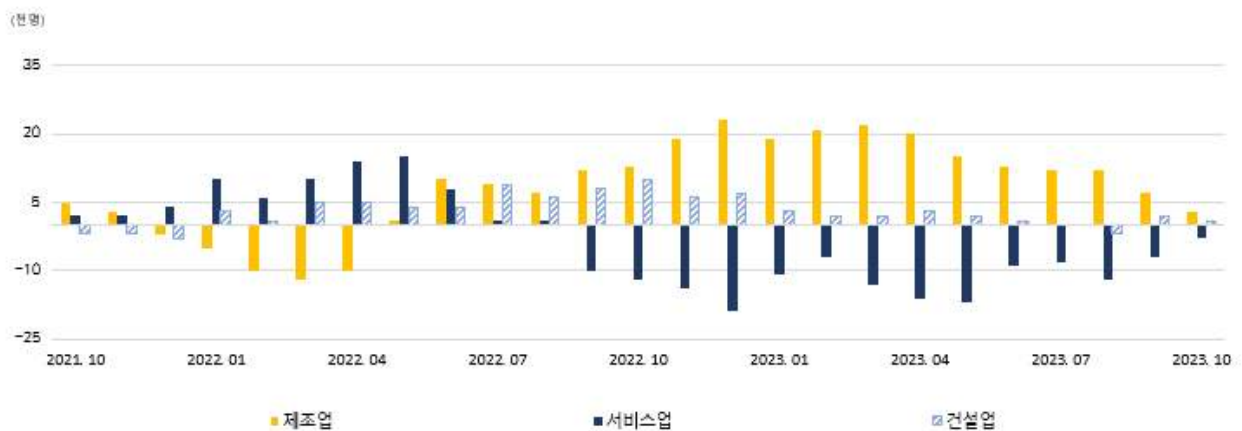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제조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서비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

-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3천명(1.7%) 증가, 건설업은 1천명(2.0%) 증가, 서비스업은 3천명(-0.9%) 감소
 - (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4천명(15.1%) 증가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9천명(-4.6%), 전기·운수·통신·금융 8천명(-15.4%) 각각 감소

산업별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력산업 피보험자) 선박·비철금속 등은 증가, 석유화학·자동차는 감소 추세

- » **(석유화학)** 석유정제품 피보험자수는 61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17,14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 **(자동차)** 피보험자수는 50,3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22년 5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
- » **(선박)** 피보험자수는 35,04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 **(비철금속)** 1차금속의 피보험자수는 5,96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자료: 고용행정통계, 노동시장현황

주력산업 피보험자수

(단위: 명, %)

	2022			2023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석유정제품	702	729	733	750	755	776	792	616	613	618	614	616	619
	9.0	13.9	14.9	15.6	15.6	17.4	20.4	-6.8	-7.3	-11.0	-12.7	-11.9	-1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7,340	17,178	17,256	17,193	17,300	17,278	17,224	17,245	17,286	17,299	17,108	17,127	17,141
	0.5	-1.0	0.5	-0.2	-0.4	-0.7	-1.1	-1.4	-1.6	-0.9	-1.6	-1.5	-1.1
자동차	51,428	49,948	50,579	49,119	49,192	49,366	49,718	49,735	49,651	49,700	49,804	49,977	50,320
	-1.6	-3.9	-3.3	-4.5	-4.5	-4.0	-3.6	-2.9	-3.1	-3.2	-2.5	-2.7	-2.2
선박	32,988	33,219	33,742	33,475	33,345	33,712	34,041	34,131	34,439	34,614	34,665	34,839	35,046
	1.1	1.1	1.5	0.9	0.7	2.2	2.6	3.2	4.3	4.1	4.7	4.5	6.2
비철금속	5,662	5,680	5,704	5,773	5,790	5,884	5,890	5,878	5,900	5,917	5,926	5,951	5,969
	3.0	3.2	2.8	5.1	5.6	6.0	4.6	4.1	4.3	4.6	4.3	4.9	5.4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행정통계, 노동시장현황

7 물가

'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2%

» '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로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상품물가지수)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농산물, 석유류, 축산물 등이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
- (서비스물가지수)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집세가 올라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개인서비스가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

※ 지출목적별로 의류 및 신발(7.6%), 식료품·비주류음료(7.6%), 기타상품 및 서비스(5.6%) 등이 크게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지출목적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

	2022						2023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소비자물가지수	109.0	109.2	110.1	110.1	110.4	110.6	111.1	111.1	111.1	112.3	113.1	113.5	112.5
- 상품물가상승률	4.9	4.8	5.0	4.7	4.2	3.6	3.4	2.9	2.5	3.7	3.9	4.0	3.2
- 서비스물가상승률	5.8	5.9	6.1	5.4	4.5	3.0	2.7	2.0	1.6	3.9	4.6	4.9	3.3
- 서비스물가상승률	4.0	3.8	3.8	3.9	3.9	4.2	4.1	3.8	3.4	3.4	3.3	3.0	3.1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8 금 융

'23년 9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기업대출은 증가세 유지 '23년 10월 어음부도율은 7개월 연속 증가

» (가계대출) 9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한 **21.4조원** (전월대비 +1.3%)

– (주택담보대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12조원이며, 전월대비 증가(+822억원 → +896억원)

» (기업대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19.9조원** (전월대비 851억원 증가)

※ 전국의 경우,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기업대출은 7.5% 증가

» (어음부도율) 10월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한 **0.12%**로 전국 평균 (0.22%)을 하회

» (연체율) 9월 연체율은 전년동월대비 0.15%p 증가한 **0.26%** (전월대비 +0.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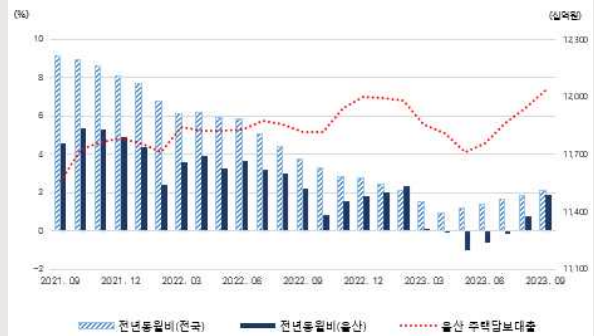
– (가계대출연체율) 전년동월대비 0.06%p 증가한 0.18% (전월대비 -0.03%p)

– (기업대출연체율) 전년동월대비 0.21%p 증가한 0.31% (전월대비 +0.0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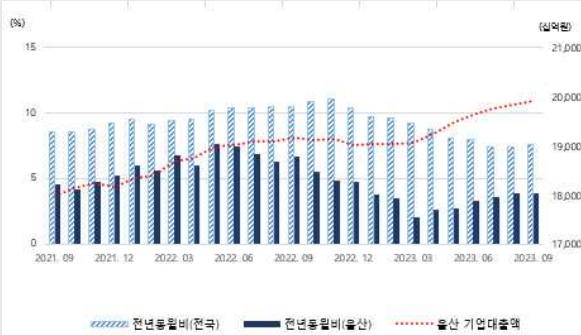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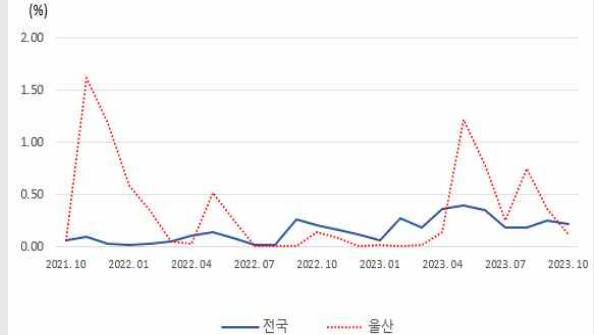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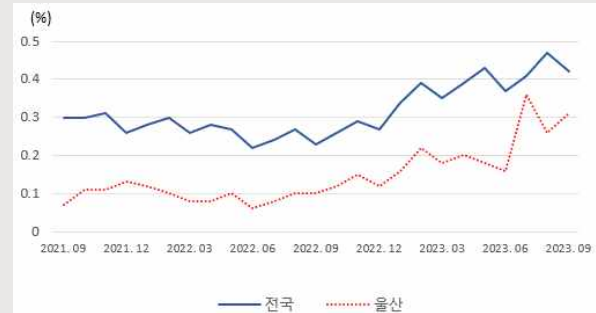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지역별여수신, 어음교환 및 부도

가계대출 연체율



기업대출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 연체율

대출·어음부도율·연체율

(단위: 십억원, %)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가계대출	22,126	22,067	22,152	22,080	21,923	21,793	21,492	21,362	21,221	21,234	21,310	21,090	21,359
	-2.1	-3.1	-3.1	-3.4	-3.4	-3.3	-4.7	-5.0	-5.5	-5.3	-4.6	-5.3	-3.5
- 주택담보대출	11,813	11,815	11,942	11,997	11,993	11,983	11,852	11,809	11,709	11,755	11,860	11,942	12,032
	2.2	0.8	1.5	1.8	2.0	2.3	0.1	-0.1	-1.0	-0.6	-0.1	0.8	1.9
기업대출	19,163	19,117	19,117	19,011	19,029	19,027	19,041	19,228	19,476	19,612	19,759	19,810	19,895
	6.6	5.5	4.8	4.7	3.7	3.5	2.0	2.6	2.7	3.3	3.6	3.9	3.8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지역별여수신

(단위: %, %p)

	2022				2023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어음부도율	0.14	0.08	0.00	0.01	0.00	0.01	0.14	1.22	0.78	0.25	0.75	0.36	0.12
	0.08	-1.54	-1.18	-0.57	-0.35	-0.04	0.11	0.70	0.52	0.25	0.75	0.36	-0.02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한국은행, 어음교환 및 부도

(단위: %, %p)

	2022				2023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대출연체율	0.11	0.13	0.15	0.14	0.16	0.21	0.18	0.19	0.19	0.16	0.29	0.25	0.26
	0.03	0.02	0.03	-0.02	0.04	0.09	0.09	0.10	0.08	0.08	0.20	0.14	0.15
- 가계대출 연체율	0.12	0.14	0.16	0.17	0.16	0.20	0.18	0.18	0.20	0.18	0.19	0.21	0.18
	0.03	0.03	0.04	0.06	0.02	0.06	0.07	0.06	0.07	0.07	0.08	0.08	0.06
- 기업대출 연체율	0.10	0.12	0.15	0.12	0.16	0.22	0.18	0.20	0.18	0.16	0.36	0.26	0.31
	0.03	0.01	0.04	-0.01	0.04	0.12	0.10	0.12	0.08	0.10	0.28	0.16	0.21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한국은행, 연체율

9 부동산

'23년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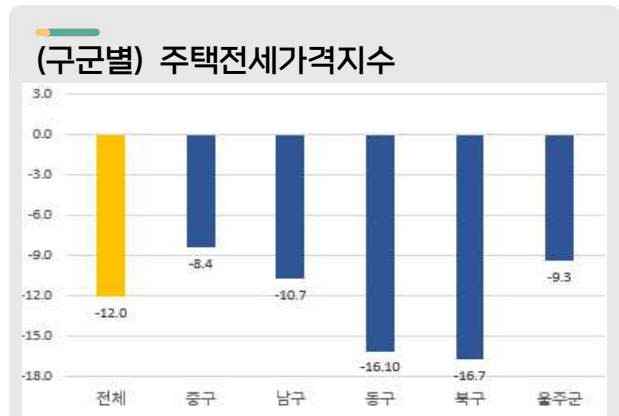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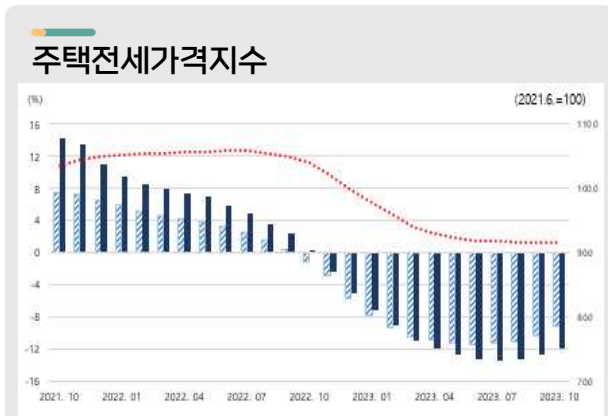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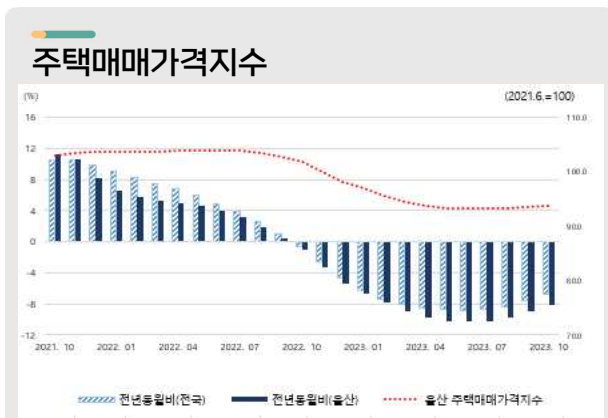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 **93.7**

» 구군별로 중구 94.7(-6.2%), 남구 93.7(-8.1%), 동구 92.5(-9.5%), 북구 91.6(-10.0%), 울주군 95.6(-6.6%)

»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2.0% 감소한 **91.5**

» 구군별로 중구 92.8(-8.4%), 남구 92.1(-10.7%), 동구 87.0(-16.1%), 북구 88.1(-16.7%), 울주군 96.1(-9.3%)

※ 전국의 경우(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7% 감소한 96.2, 주택전세가격지수는 9.2% 감소한 92.1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가격지수

(단위: 2021.6.=100, %)

	2022			2023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택매매가격지수	101.9	100.0	98.1	96.9	95.7	94.5	93.8	93.4	93.3	93.3	93.4	93.5	93.7
	-1.0	-3.3	-5.4	-6.6	-7.8	-9.0	-9.7	-10.2	-10.3	-10.2	-9.7	-9.0	-8.0
주택전세가격지수	104.0	102.0	99.7	97.7	95.9	94.0	93.0	92.3	91.9	91.7	91.6	91.6	91.5
	0.4	-2.3	-5.0	-7.1	-9.0	-10.9	-11.9	-12.8	-13.2	-13.4	-13.2	-12.8	-12.0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3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 큰 폭 증가, 미분양주택은 높은 증가율 지속

»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7.9% 증가한 1,194호

- 구군별로 중구 207호(+48.9%), 남구 408호(+150.3%), 동구 111호(+42.3%), 북구 250호(74.8%), 울주군 218호(16.0%)

» (미분양주택) 전년동월대비 120.0% 증가한 3,111호

- 구군별로 중구 78호(+3,800.0%), 남구 526호(+1,068.9%), 동구 64호(+3,100%), 북구 387호(741.3%), 울주군 2,056호(+55.9%)

※ 전국은(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거래량은 52.6% 증가한 49,448호, 미분양주택은 43.8% 증가한 59,8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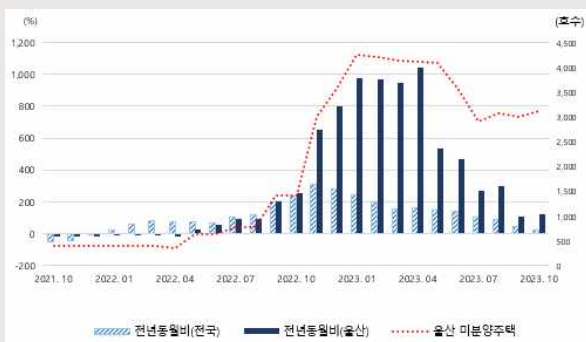
주택매매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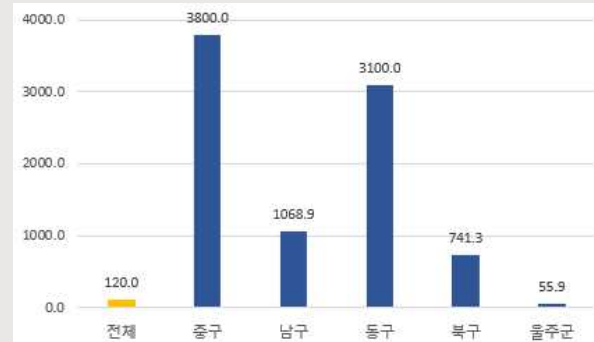
(구군별) 주택매매거래량



미분양주택



(구군별) 미분양주택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주택가격지수

(단위: 호수, %)

	2022			2023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택매매거래량	711	709	545	610	1,029	1,189	1,077	1,381	1,225	1,278	1,228	1,289	1,194
	-63.5	-61.0	-53.8	-38.9	-2.8	9.0	-24.3	-15.2	10.3	42.3	68.0	81.3	67.9
미분양주택	1,414	2,999	3,570	4,253	4,211	4,134	4,123	4,077	3,551	2,909	3,069	2,990	3,111
	252.6	651.6	799.2	976.7	966.1	946.6	1,042.1	536.0	466.3	269.2	296.0	109.7	120.0

주: 이탤릭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 국토교통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Ulsan Economy Trend

전문가 리포트

■ 김종호 스포츠관광, 왜 주목해야 하는가?



스포츠관광, 왜 주목해야 하는가?

김 종 호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조교수

▶ 1. 스포츠와 관광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과거 ‘얼마나 오래 사는가?’라는 기대수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떻게 오래 사는가?’라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수명의 연장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식습관, 음주 및 흡연의 자제, 건강보조식품 섭취 등 비교적 수동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포츠 활동 참여는 능동적인 건강수명 연장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일부분이자 건강문화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관광은 능동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의 한 방법이며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스포츠관광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FTO)는 2018년 14억 명인 세계관광객 수가 2030년에는 18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 운송, 문화, 쇼핑, 스포츠 등 소비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타 산업과 비교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며, 그 규모는 현재 전 세계 부가가치 생산액 및 고용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관광은 지역 경제 발전, 건강 증진, 관광 산업 성장, 문화 교류, 지역 홍보, 사회자본 확대 등의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관광은 스포츠의 중요도 및 비중에 따라 스포츠 중심 스포츠관광과 관광 중심 스포츠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중심 스포츠관광은 스포츠가 핵심 활동이며 이동, 음식, 숙박, 지역명소 방문 등은 부수적인 활동이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스포츠관광의 대표적인 행사로 떠오르는 ‘울주트레일나인피크’, ‘제주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부산 해운대 북극곰축제’ 등이 스포츠 중심 스포츠관광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관광 중심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활동 참여를 다양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여긴다.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서 맛집을 탐방하고 민속촌을 방문한 후 올레길을 트래킹하는 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스포츠관광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스포츠관광산업의 규모는 관광 산업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야로 2023-2027년 세계 스포츠관광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12.88%를 보일 예정이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75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관광은 소극적인 관람 중심의 관광 형태에서 적극적인 체험 중심의 관광 형태를 선호하는 트라이슈머(try-sumer)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또한 기존 미디어의 활용은 물론 새로운 디바

이스와 플랫폼, 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관람하는 문화적 현상 또한 스포츠관광의 급속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스포츠관광의 성장은 여가시간의 보장과 노동시간의 단축 등의 정부의 노력과 일과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소한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휴게(Hygee) 등의 키워드가 사회·문화 전면에 대두되는 문화 트렌드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스포츠관광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스포츠관광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중 스포츠를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는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은 지역의 특화된 스포츠관광상품 및 스포츠이벤트 개발을 통한 신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스포츠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의 특화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22년 개최된 ‘울주 트레일 페스타’ 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년차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선정된 도시 현황과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이다.

[표 1]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현황

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2015	청주시	청주 스포츠 힐링 투어
	영월군	레포트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	영주시 유물문화관광 스포츠 클러스터
	춘천시	춘천 SPO TOUR S.E.T. 프로그램
	제천시	제천시와 함께하는 힐링 레포트투어
2016	청송군	4D Ice Climbing
	고성군	고성 바이크 어드벤처
	전주시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드론축구용품 개발 및 드론축구 협의회 발족
2017	삼척시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육성 프로젝트
	예천군	할 스포츠 클러스터 사업
2018	의성군	의성 컬링 테마 스포츠관광타운 조성
	밀양시	밀양 요가 웰니스스포츠 융복합관광 산업육성
	기장군	야구 테마 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조성
	보은군	지역 특화 육상도탈 매니지먼트
2019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산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관광
	하동군	드론을 활용한 미래형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2020	부산 수영구	SUPrise 광안리 비치 레포트관광 특화산업
	부여군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
2021	경남 고성군	IRONMAN Goseong Sport Care Festa
	영덕군	영덕특화 풋볼트립
	포항시	포항바다 & 포항운하 낭만의 길
	익산시	승마관광 메카도시 익산
2022	울주군	울주 트레일 페스타
	단양군	수상스포츠의 메카 “단양 구경가자”
	신안군	플로피아 1004섬 신안 스포츠관광 축제
	부안군	새만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관광

첫 사업 시작인 2014년은 내학 및 기관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매년 정부보조금 3억~5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볼거리와 먹거리로는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울산 지역의 스포츠관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관광 성공 사례, 나아가 울산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통해 현재 신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포츠관광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자 한다.

▶ II. 울산시와 스포츠관광

울산시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10만 명이며, 3개의 고속국도, 5개의 일반국도, 항공, 철도,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쪽으로는 진해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정자해수욕장 등 바다를 접하고 있고, 시내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및 수상스포츠 인프라와 함께 울산시 서쪽에는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총 9개의 명산을 통칭하는 ‘영남알프스’가 위치해 있어 1시간 이동권 이내에 해양, 수상, 도심,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녔다.

울산시는 정기적으로 울산진하비치발리볼대회, PWA세계윈드서핑대회, 영남알프스 산악경기대회, 아시안컵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난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선정되어 3년간 총 15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산악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객 유입의 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1] 스포츠관광을 위한 울산시의 환경 여건



하지만 정작 주변사람들에게 ‘울산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울산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등 공업과 관련된 이미지나 고래고기, 연양불고기 등 먹거리와 관련된 대답을 할 것이다. 범위를 좁혀 울산의 대표적인 스포츠브랜드나 스포츠랜드마크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울산 지역에 연고를 둔 울산 현대 축구단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자. “영국의 웸블던, 맨체스터,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보스턴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브랜드는 무엇인가?” 아마도 누구나 망설임 없이 웸블던 테니스 대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 스포츠브랜드의 특징은 스포츠브랜드 자체가 그 도시를 대표한다는 점이며, 도시 스포츠브랜드는 스포츠 중심 스포츠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해당 스포츠의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찾은 스포츠관광객을 통해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및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세계 주요 도시의 스포츠브랜드



국내에서는 최근 강원도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떠올랐다. MZ 세대의 서핑은 양양이라는 공식이 만들어 졌고, 군사 지역을 대여해 서핑 전용 해변으로 변화시키자 2015년 개장 후 연간 55만 명이 찾는 강원도의 스포츠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총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던 지역 초고령 소도시가 최근 몇 년간 제 2의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강원도 양양의 평당 땅값이 7,000만원까지 상승했다는 웃지 못 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유행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릴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스포츠관광을 통한 도시 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스포츠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성장산업이다. 울산시는 다른 스포츠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시만이 가지는 고유한 스포츠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하며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 Ⅲ. 국내외 스포츠관광 및 도시개발 성공 사례

1.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는 1970년대 중반 다른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 중서부의 도시였다. 이 도시의 경제 기반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이었으며, 미국의 대규모 경제 침체 당시 자본의 투자 감소와 산업 이동의 취약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인디애나폴리스 도시 관계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한 도시 재생을 채택하였다. 특히, 스포츠를 도시 발전의 토대로 사용하기 위해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서비스 부문 경제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1991년까지 1억 6,800만 달러 이상이 첨단 스포츠 시설에 투자되었고 그 중 2,150만 달러가 투입된 5천 석 규모의 수영과 다이빙 단지, 600만 달러가 투입된 2만 석 규모의 육상 경기장, 250만 달러가 투입된 5천 석 규모의 벨로드롬, 그리고 가장 많은 자금인 7,750만 달러가 들어간 6만 3백 석 규모의 돐구장은 NFL의 프랜차이즈인 콜츠가 볼티모어에서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전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새로운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 전문 스포츠 프랜차이즈와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을 유치하며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 개발과 함께 스포츠 관광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 500(Indianapolis 500), 브릭야드 올스테이트 400(Allstate 400 at the Brickyard), 미국에서 열린 포뮬러 원(Formula One) 레이스 등 연례 자동차경주 개최지로 선정된 것 이외에도 1982년 전미스포츠축제, 1987년 팬암게임, 1991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1980, 1991, 1997, 2000년에는 NCAA 남자 농구 토너먼트 파이널을 개최했다. 또한 NCAA, USA 트랙 앤 필드, 미국 스포츠 의과대학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 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자리 잡으면서 [ESPN 더 매거진]은 북미에서 인디애나폴리스를 '넘버 원 프로 스포츠 시티'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스포츠를 통한 도시 개발의 노력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던 지난 2021년 놀라운 결과로 빛을 바랬다. 미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대회이자 세계 3대 레이스인 인디애나폴리스 500이 개최되자 13만 5,000명에 달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코로나로 인해 객석 허용 비율을 40%로 축소했으나 전 세계에서 열린 스포츠 이벤트 관중 수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경기로 기록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이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살아난 것이다.

영국의 셰필드 또한 인디애나폴리스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 도시의 전통 산업인 철강산업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시와 정부의 주도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관민합작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면서 스포츠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 셰필드는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 영국 내에서 독자적인 스포테인먼트 도시, 스포츠�관광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스포츠와 관련된 서비스 중심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3] 인디애나폴리스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 인디 500 경기장



2. 캐나다 휘슬러, 네덜란드 헤이그

캐나다 휘슬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남쪽 산맥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이다. 1975년 ‘휘슬러 리조트형 지자체’라는 명칭으로 사계절형 산악 리조트 도시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스노우보드와 알파인스키 등의 설상종목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휘슬러는 한국 용평 스키장의 약 20배 규모의 북미에서 가장 큰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캐나다의 작은 로키라 불린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 휘슬러는 주변방의 관광산업과 도시의 명성을 크게 떨칠 수 있었고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총 관광 수입 중 1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휘슬러는 눈과 함께 즐기는 겨울철 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국제적인 사계절형 리조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공원, 트레일, 스포츠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호수 크로스컨트리, 인도어 프로그램,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코스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휘슬러의 주요 전략은 동절기에는 설상종목을, 하절기에는 산악자전거와 하이킹 등 특정 종목을

특화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북해 연안에 자리 잡은 인구 55만의 자위트홀란트 주의 수도이다. 네덜란드 주요 대도시들 중 유일하게 북해에 맞닿아 있어 해양자환경을 활용한 요트세일링 종목을 특화하여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와 쉐브니겐 항구, 그리고 요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제세일링 센터를 설립하고 북해의 해양 및 해변 환경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헤이그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해양스포츠 자원과 접목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4] 캐나다 휘슬러, 네덜란드 헤이그 스포츠관광



3. 중국 쿤밍시, 강원도 양구군

영원한 봄의 도시라 불리는 중국의 쿤밍시는 2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인구 약 400 만의 원낭성의 성도이다. 해발 1,891m의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연중 온화한 기후가 계속 되는 덕분에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성지로 불린다. 쿤밍시는 1990년대 초 중국의 장거리 육상선수들이 이곳에서의 훈련을 통해 세계 육상대회에서 대거 입상하자 더욱 유명세를 띄기 시작했다. 육상 장거리 훈련장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테니스, 수영, 빙상 등 다양한 스포츠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연간 1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스포츠 팀들의 최적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국내에서 쿤밍시와 비슷한 사례로는 강원도의 양구군이 있다. 양구군은 지난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110여 개의 대회와 80여 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약 28만 명 이상이 이

곳을 다녀갔다. 이는 양구 인구의 9배가 넘는 선수와 스태프, 그리고 관계자들이 다녀간 셈이다. 양구군은 2017년부터 3년간 전지훈련 특화를 통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얻었고, 매년 양구를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팀은 260개가 넘는다. 양구군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60% 이상을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 구장과 테니스파크 등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하고 펜싱, 역도, 육상 등 비인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군민사와 마찬가지로 고지대와 평지가 함께 위치한 자연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양구군 직원들이 선수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구군은 스포츠를 지역 활성화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국내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중국 쿤밍, 강원도 양구 전지훈련장



▶ IV.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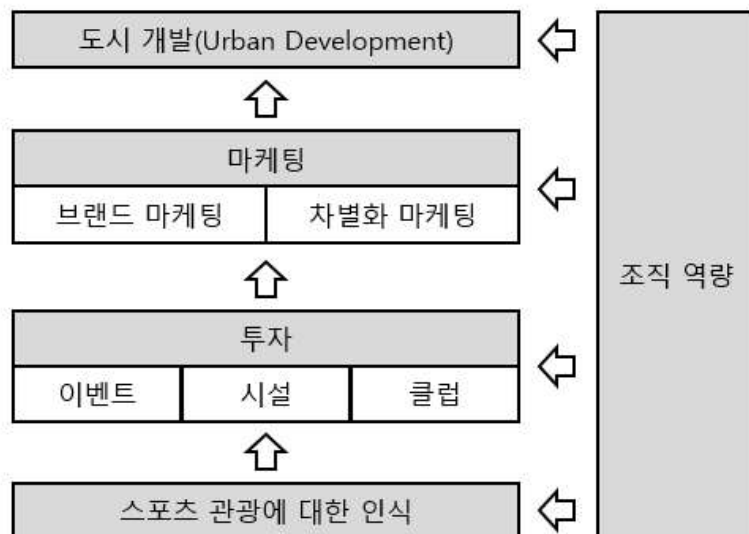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교육, 자본, 정보 등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듯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스포츠 및 문화와 연계된 지역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관광,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형성은 해당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선수, 스태프, 관광객 등의 인적 자원의 유입과 물자, 정보, 자본 등의 물적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치러진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 사회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감안했을 때 도시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적절한 수준의 투자, 지속적인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울산지역의 스포츠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스포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의 유치, 스포츠클럽에 대한 투자 등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스포츠관광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 그리고 시민들과 울산시가 얻게 되는 혜택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포츠는 다른 도시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스포츠가 사회통합, 보건, 건강, 교육 정책의 필수적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6]과 같은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울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시는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수정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6] 스포츠관광을 통한 도시발전의 구조



스포츠는 도시의 이미지를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늪은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음의 서핑 도시로 거듭난 양양군, 전국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모이는 전지훈련의 도시 양구군과 예천군, e-스포츠의 메카 부산시, 탄광도시에서 산악자원을 활용해 스포츠관광도시로 탈바꿈한 태백시 등이 스포츠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스포츠관광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장소/종목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브랜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해석하거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 브랜딩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이미지가 구축되면 지역의 훌륭한 자산이 된다.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공고한 전략이 필요하며 전략은 지역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보유한 자원의 강점을 평가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관광의 브랜드화는 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숙박 및 MICE 산업, 요식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05년 전국 체전을 통해 울산시의 체육시설/숙박시설/요식업 관련 인프라가 크게 성장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 한다. 즉, 스포츠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건설, 환경, 조경 관련 사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관광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 지자체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들의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스포츠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만이 아니다. 각자의 의도, 관심,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계속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늘어간다. 이에 스포츠관광과 도시 발전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역량이 요구된다. 정치인, 지자체의 관련 부처, 스포츠 시설 관리자, 자원봉사 조직, 스폰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통합과 창조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시설 관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 기록의 보존 등 사후 활용에 대한 방안 또한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며, 스포츠관광에 대한 방향성 확립과 행정/제도의 안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스포츠관광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 울산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공적인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관광도시’, ‘도시재생’, ‘지역 특화 스포츠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들의 인프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시가 생동감 있는 스포츠의 도시로 자리 잡을 날을 기원하며 여기서 본 고를 마치고자 한다.

Ulsan Economy Trend

국내외 경제동향

1. 대외경제 동향

2. 국내경제 동향



1 대외경제 동향

세계 경제¹⁾

- » 세계 경제는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기 부호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계 산업생산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경기 및 소비 관련 선행지표도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
 -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 부담으로 기업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
-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 중동 정세 불안 등 위험 요인도 상존

 -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2024년에 세계경제가 2%대 후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지정학적 위험의 확대로 시장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임
 - 이와 함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 등이 상승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 10월 유가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감소하면서 급등한 후,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으로 전환

 -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과 OPEC+의 감산으로 공급 불안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10.31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 88.05달러(전월 대비 -8.38%), WTI 81.02달러(-10.76%), 브렌트 87.41달러(-8.29%)
- » 글로벌 경기둔화 속 미중갈등 지속으로 교역 둔화

 - WTO,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을 0.8%(-0.9%p)로 대폭 하향, 중국의 경기둔화와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

1) 한국개발연구원('23.11.07.), KDI경제동향2023.11. ; KOTRA('23.11.09.), 2023년 10월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주요국 경제²⁾

» **(미국)**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재고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

-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2023년 4/4분기 이후 GDP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9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 제조업과 광업은 각각 0.4% 증가한 반면, 유틸리티는 0.3% 감소했으며, 9월 시작된 자동차 노조 파업 확산 시 생산 위축 가능성
- 9월 소매판매는 온라인과 요식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면서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가 지속

» **(중국)** 생산과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부동산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기 불안 요인도 상존

- 3/4분기 성장률이 민간소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를 기록하였으나, 9월에도 수출(-6.2%)과 부동산투자(-9.1%)는 큰 폭의 하락세 지속
- 태양광, 로봇 등 분야의 견조한 성장세와 집적회로 생산 회복에 힘입어 9월 4.5%에서 10월 4.6%로 소폭 상승
- 국경절 연휴 효과에 힘입은 견조한 외식소비 성장세(17.1%)와 함께 상품소매판매 역시 7.6% 증가
- 10월 수출은 6.4% 감소한반면 수입은 3.0% 증가,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기계전자와 집적회로 등 주요 품목은 역성장 지속

» **(유로존)**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와 심리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

- 3/4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기대비 -0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심리, 경기체감지수 등도 모두 기준치를 하회

» **(일본)** 낮은 실업률과 소비 활성화로 완만한 성장세

- 8월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4.4% 감소했으며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7.0% 증가, 취업자 수 또한 14개월 연속 증가세
-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했으며, 향후 견고한 기업수익 등을 배경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 9월 수출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3%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

2) 한국개발연구원('23.11.07.), KDI경제동향2023.11. ; KOTRA('23.11.16.), 중국 10월 경기동향 ; KOTRA('23.11.09.), 2023년 10월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2 국내경제 동향

총평³⁾

» 최근 국내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

- 서비스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생산과 수출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여행수요 확대로 관련 서비스업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건설업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고용도 반등함
 -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
 - 다만, 고금리 기조로 인해 상품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을 지속
-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
 -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
 - 또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23년 10월 산업활동⁴⁾

» (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3.5%)과 서비스업(-0.9%) 등에서 모두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

- (광공업생산) 전자부품(10.4%)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11.4%), 기계장비*(-8.3%)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
 - *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감소
 - ** 반도체조립장비, 선박용내연기관 등 생산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장비(-13.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4.7%), 1차금속(17.3%) 등에서 생산이 늘어 1.1% 증가
- (서비스업생산) 정보통신(1.3%)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9% 감소
 -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등에서 감소
 - **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기타 금융업 등에서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도소매(-3.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운수·창고(6.6%), 보건·사회복지(5.6%) 등에서 생산이 늘어 0.8% 증가

» (소비)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

3) 한국개발연구원('23.11.07.), KDI경제동향2023.11.

4) 통계청('23.11.3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 (소매판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0%), 의복 등 준내구재(4.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

* 음식료품, 화장품 등에서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1%), 가전제품 등 내구재(-5.2%), 의복 등 준내구재(-4.3%)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 4.4% 감소

- (소매업태별 판매) 전년동월대비 무점포소매(3.1%), 대형마트(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4.6%), 백화점(-2.2%), 전문소매점(-5.4%), 면세점(-31.1%), 편의점(-6.2%),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2.0%)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

» (투자)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9.7% 감소,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설비투자)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3% 감소

* 반도체 제조용기계 수입(일평균, 백만달러, 관세청) : ('23.9월) 58.3 → ('23.10월) 49.9

- 전년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7%)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4.3%)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9.7% 감소

- (국내기계수주) 공공(-9.2%)에서 줄었으나, 민간(16.8%)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

- (건설기성) 토목*(-1.0%)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3%)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

* 일반토목 등에서 공사 실적 감소

** 주거용에서 공사 실적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2.0%) 및 토목(11.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4.1% 증가

- (건설수주) 항만, 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 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하락, 상승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1p 하락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

» '23년 10월 수출입⁵⁾

» (수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로 1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 수출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품목별) 승용차(21.0%), 석유제품(17.7%), 선박(104.4%), 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4.8%), 자동차부품(-5.1%) 등은 감소

5) 관세청('23.11.15.), 2023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국가별) 미국(17.3%), 일본(10.3%), 홍콩(21.3%), 싱가포르(70.5) 등은 증가, 중국(-9.6%), 유럽연합(10.7%), 베트남(2.5%) 등은 감소*

* 對중국 수출 17개월 연속 감소, 미국은 3개월 연속 증가

» (수입)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한 535억 달러 기록

- 소비재(-4.1%), 자본재(-6.3%), 원자재(-13.4%) 모두 감소

» (무역수지) 16억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억 달러) : (‘23.6) 12.0 → (7) 18.0 → (8) 10.5 → (9) 37.0 → (10) 16.3

» '23년 11월 물가⁶⁾

» '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 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하락하여 전체 0.6% 하락
-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전체 3.3%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보합,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5% 하락,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

» '23년 10월 고용⁷⁾

» (고용) 15세 이상 취업자수는 2,87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7%으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4천명, 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 5.9%), 정보통신업(7만 5천명, 7.6%) 등에서 증가, 제조업(-7만 7천명, -1.7%), 교육서비스업(-4만 4천명, -2.3%), 부동산업(-2만 6천명, -4.8%) 등에서 감소

» (실업) 실업자수는 6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1%으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6) 통계청('23.12.5.),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7) 통계청('23.11.15.), 2023년 10월 고용동향.

▶ 참고 1 최근 10년의 울산 주요경제지표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	추계인구 (천명)	1,137	1,151	1,164	1,166	1,159	1,153	1,146	1,139	1,124	1,113
	주민등록인구 (천명)	1,156	1,166	1,174	1,172	1,165	1,156	1,148	1,136	1,122	1,111
	인구 증가율 (%)	0.8	0.9	0.6	-0.1	-0.6	-0.8	-0.7	-1.0	-1.3	-1.0
	고령화율 (%)	7.9	8.3	8.6	9.1	9.8	10.5	11.3	12.4	13.4	-
고용	생산가능인구 (천명)	938	955	970	976	976	973	967	964	962	956
	경제활동인구 (천명)	566	572	590	599	605	602	596	585	575	58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372	383	380	378	372	371	370	379	386	372
	경제활동참가율 (%)	60.3	59.9	60.8	61.3	61.9	61.8	61.7	60.7	59.8	61.1
	취업자수 (천명)	554	556	573	576	584	574	571	560	555	566
	고용률(%) (청년고용률)	59.0 (37.7)	58.3 (38.5)	59.0 (38.3)	59.0 (38.7)	59.8 (40.9)	59.0 (40.4)	59.1 (39.1)	58.1 (37.6)	57.7 (36.5)	59.2 (40.5)
	실업자수 (천명)	12	16	17	23	21	28	25	25	21	19
	실업률(%) (청년실업률)	2.1 (6.7)	2.7 (8.0)	2.9 (9.3)	3.8 (11.1)	3.5 (8.5)	4.6 (9.8)	4.2 (8.8)	4.2 (11.6)	3.6 (8.0)	3.2 (7.8)
경제 활동	지역내총생산 (실질,십억원)	72,322	72,409	72,854	73,478	72,969	71,344	72,025	67,136	69,621p)	-
	경제성장률 (%)	0.5	0.1	0.6	0.9	-0.7	-2.2	1.0	-6.8	3.7	-
	지역총소득 (십억원)	53,937	51,808	56,129	59,073	60,532	61,198	62,156	61,405	66,686p)	-
	1인당 GRDP (천원)	62,653	60,925	62,605	64,021	65,370	63,793	65,112	60,895	69,133p)	-
	1인당 지역총소득 (천원)	48,678	46,025	49,381	52,205	52,237	52,694	54,190	53,908	59,346p)	-
	1인당 개인소득 (천원)	19,782	20,142	21,348	21,422	21,956	21,655	22,617	23,863	25,165p)	-
	1인당 민간소비 (천원)	15,665	16,172	16,575	17,056	17,946	18,090	18,574	17,816	19,211p)	-

주: 1) 고령화율 = 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2) 청년은 15-29세
 3) 지역총소득 = 1인당 지역총소득 x 해당년 추계인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	재정자립도 (%)	70.7	70.2 (61.4)	72.0 (63.6)	72.2 (62.3)	69.9 (60.2)	66.0 (59.9)	59.7 (53.7)	56.2 (51.6)	54.4 (49.6)	54.7 (48.7)
	재정자주도 (%)	80.0	78.2 (69.4)	79.6 (71.1)	80.5 (70.6)	78.4 (68.8)	76.0 (70.0)	74.4 (68.3)	72.2 (67.5)	70.0 (65.2)	72.6 (66.7)
산업 구조	1차산업 비중 (%)	0.3	0.3	0.3	0.3	0.3	0.2	0.2	0.2	0.2	-
	2차산업 비중 (%)	73.5	71.0	70.2	70.3	70.1	68.5	68.3	66.2	66.7	-
	3차산업 비중 (%)	26.2	28.7	29.6	29.5	29.6	31.3	31.5	33.6	33.0	-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2020=100)	116.6	114.7	110.9	103.1	102.3	106.0	107.3	100.0	106.6	105.5
	제조업 생산액 (십억원)	216,641	209,000	178,476	167,402	175,632	190,676	193,167	159,970	-	-
	제조업 생산증감률 (%)	-5.9	-3.5	-14.6	-6.2	4.9	8.6	1.3	-1.7	-	-
	서비스업생산지수 (2020=100)	96.9	98.7	102.1	103.1	102.8	103.6	103.2	100.0	102.9	108.7
수출입	수출 (백만달러)	91,513	92,400	72,907	65,259	66,700	70,127	69,530	56,091	74,269	90,154
	수출 증감률 (%)	-5.9	1.0	-21.1	-10.5	2.2	5.1	-0.9	-19.3	32.4	21.4
	수입 (백만달러)	83,915	79,739	32,457	27,701	30,269	36,038	32,742	28,286	40,696	52,113
소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1.5	1.2	0.5	1.0	1.9	1.0	-0.3	0.3	2.5	5.0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107.6	102.7	100.0	95.9	91.7	86.5	84.4	79.0	80.9	76.7p)
	소매판매액지수 (2015=100)	97.1	98.3	100.0	99.3	97.9	97.4	96.6	96.3	95.5	93.9p)
기타	가계대출액 (십억원)	14,555	16,541	18,290	20,303	21,663	21,748	21,601	22,113	22,857	22,080
	가계대출 증감률 (%)	8.5	13.6	10.6	11.0	6.7	0.4	-0.7	2.4	3.4	-3.4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2021.6=100)	0.22	3.11	3.23	0.44	-1.08	-6.87	-2.95	7.63	8.14	5.40

주: 1)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100 (시 공표)

2)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100 (시 공표)

3)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이며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4) 클라크(Clark, C.G.) 산업분류 기준 : 1차산업(농림어업), 2차산업(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3차산업(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출판영상,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5) 산업 비중은 지역내총부가가치(당해년가격)를 기준으로 산출

▶ 참고 2 용어 해설

경기동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CI)의 하나 • 기준연도(2020)를 100으로 하여 현재의 지표가 100이상이면 기준연도보다 경기가 좋음, 이하이면 기준연도보다 경기가 나쁨으로 해석 • 또한, 전월대비 증감률이 양(+)일 경우는 경기상승을, 음(-)일 경우는 경기하강을 의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지수의 변동요인 중 추세적 요인을 제거하여 작성 • 기준치 100을 상회하면 확장국면을, 하강하면 수축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크기 또는 증감보다는 그 움직임의 방향에 더 큰 의미가 있음
기업경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기조사는 기업가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기예측기법의 하나로 조사결과인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임 $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 대비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광공업생산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산활동의 추이를 월별로 파악하기 위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량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며, 실물경기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생산자제품출하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의 월간판매활동과 광공업 및 전기가스제품의 월간출하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생산자제품재고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및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재고의 월간변동을 파악하는 지표
대형소매점판매액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의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을 지수로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대형소매점에서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고용률(%)	$\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취업률(%)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실업률(%)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참가율(%)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생산가능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5세 이상 인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짐 ※ OECD에서는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봄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휴직자,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이 없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소비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202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58개를 대상으로 작성 매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률을 측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 측정에 활용 기준시점인 2020년=100으로 보고 비교시점의 지수가 90이면 기준시점(2020년)에 비해 90% 수준임을 나타냄
주택가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에서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21.6.=100)을 기준 시점으로 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 값으로 부여하여 산출하는 지표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효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지역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합계
지역총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합계 지역내총생산 - 외부인이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 + 지역민이 외부에서 창출한 소득